

서울을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국제금융거점도시의 비전

- 서울시에서는 2002년도 하반기부터 서울시를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음
 - 우리나라에 국제금융거점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 의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대체로 이루어진 상태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로드맵, 그리고 지역 선택에 있어서는 각계에서 많은 토론과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
 - 최근 정부가 내놓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한 로드맵은 재정부내 금융허브 전담조직 설립, 자산관리를 위한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등 보다 구체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 일각에서는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비관론도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에는 동북아금융허브 육성이라는 기본과제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되어 있으나 금융허브를 어디에 육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역적인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우리나라에 국제금융거점도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도시는 서울

- 서울을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은 서울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생존전략임
 - 국내 문화, 연구개발, 생산자서비스업, IT산업 등 창조적 활동의 중심지인 서울이 그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허브도시의 위상에서 진일보하여 국제무대에서 거점적 도시로 부상해야 함

- 서울을 국제분업 구조상에서 고차기능이 집적하는 중심지로서 혹은 국제적 거래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세계도시로 발전시켜야 함
- 우리나라에 국제금융거점도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은 서울임
 - 서울은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교우위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내시장과 사업기회가 존재”하는 도시로 소득 1만불 이상을 가진 1,033만 명의 인구, 683개의 상장대기업 및 1,539개의 국내금융기관과 98개의 외국금융기관에서 파생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막대한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보유
 - 또한 서울은 우리나라의 허브도시로서 국제금융거점도시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문화, 인력, 비즈니스, 도시 인프라의 측면에서 일류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즉 우리나라에서 국제금융거점도시의 기능은 서울시가 필히 추진해야 할 역할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만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임
 - 서울이 국제금융거점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타 도시와의 관계에서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도로 판단함

국제금융거점도시를 위한 준비는 지금이 적기

- 아시아 주요 도시들 간에 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주어진 기회는 향후 2년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이 기간동안 초석을 다지고 2010년까지는 단계별로 국제금융거점도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야 함
 - 먼저 동아시아 지역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채권시장과 같이 한국이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에

특화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 또한 한국의 경제여건에서 볼 때 성공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센터와 자금조달(funding)센터, 투자(investment)센터로 국제금융 산업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삼각 FTA협정 과정에서 한국이 선도적으로 동북아 역내 금융네트워크 구축에 나서는 것이 필요
- 특히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국제금융거점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

동아시아 국제금융거점도시 경쟁력 비교: 상해, 홍콩, 싱가포르

- 상해의 금융산업은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유기적인 지원을 통해 외형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국내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구축함
 - 중국정부가 상해금융센터 육성을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역외 금융업무나 국제금융업무의 발달은 부진함
 - 그러나 상해는 ‘자본시장센터’로서의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경제적·비경제적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금융시스템의 부실 제거가 완료되면 빠른 속도로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할 전망이다
- 홍콩은 자유로운 법체계와 건전한 시장경제시스템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금융센터로 발전하였으나, 지난 수년간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경제환경 악화로 인해 위축세를 보이고 있음
 - 상해 및 심천의 등장으로 대중국 무역에 수반되는 금융수요를 중개하

는 역할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나 중국 본토기업의 국제금융업무 지원, 중국의 인프라건설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발휘함

- 2010~2015년 정도까지는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위안화 표시 채권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금융산업 역시 세계적인 대형화 추세, 금융기술 발달 및 지역경제 불황의 여파로 위축된 상태임

- 1998년부터 구조조정정책을 통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 및 펀드관리, 채권시장, 파생금융시장 등의 선진화에 주력 중임
- 싱가폴은 금융관련 인프라, 금융기술,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 동남아 지역금융센터로서의 경쟁우위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금융거점도시의 위치는 안정적이지 않으며 국제금융거점도시가 되기 위한 경쟁은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리즘이 세계적인 금융산업 지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에 금융거점 도시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은 국제금융거점도시로의 부상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의 결절, 국제적 분업구조상의 고차기능이 집적하는 중심지로서 발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임

국제금융거점도시를 향한 전략 제안

○ 역내 경쟁도시들과의 경쟁여건 및 서울시의 내부환경을 기초로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울을 국제금융거점 도시로 만드는 전략은 중앙정

부에서 해야 할 부문과 서울시가 해야 할 부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먼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로

-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외환 등 각종 규제철폐, 금융기관의 진입, 영업에 관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예측가능하고 친기업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임
- 법률, 회계 등 금융관련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 교육·훈련기관 등 교육서비스 시장의 추가적 개방
- 금융상품의 특화전략과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이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먼저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채권시장을 국제화시켜 서울을 역내채권시장의 발행 및 거래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고 이를 위해 전자채권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서울을 채권시장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금융자산관리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채권시장, IT관련 금융서비스를 육성하면서 역내 금융거점 도시들과 전략적 제휴 모색함으로써 서울을 국제금융네트워크에서의 한 거점도시의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함
- 국제금융거점 도시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특히 생활환경,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부문에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필요

○ 서울시가 해야 할 부문으로서는

- “서울 국제금융센터(IFC Seoul) 추진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조채널 구축은 물론, 다국적 금융기관의 서울유치 노력을 집중하고 대외홍보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체계화할 필요

- 고급 외국인 인재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남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교육·의료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 학교, 외국인병원 등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조
 - 중앙정부, 대학, 외국계 금융전문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국제금융 전문대학원”을 설립 혹은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지역의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상해와 서울과의 금융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서울시는 국제금융거점 도시로의 위상과 기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서울시의 생활환경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성공리에 이루어내야 함
-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교육, 주택, 의료, 행정서비스 개선, 문화시설 확충, 영어사용 인력을 확충하며
 - 교통 및 공해문제 개선 등 도시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 기존 금융기관 밀집지역인 도심의 청계천 주변지역, 여의도 등에 국제금융 관련 기업, 기관이 입지할 수 있는 프라임 오피스, 호텔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을 개발할 필요
 - 외국기업들의 경영 및 생활상의 애로를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창구를 마련하고 각종 행정공문서의 한글영문공용 방안을 수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금융거점 도시 육성은 정부, 서울시, 민간 등 모든 참여자의 총력이 합쳐져야 하는 과제이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협조가 특히 중요하며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국제금융거점 도시를 위한 투자는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투자

- 국제금융거점 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금융 거점 도시의 위상에 맞게 서울시의 환경 및 도시 위상을 갖추어 나가고 서울시의 근간 산업인 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을 육성해나가는 것으로서, 이는 서울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서울의 지위향상으로 이어질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의지와 비전을 알리기 위해 국제금융센터 건립의 의미는 지대하며 동 센터에 대한 실질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오피스 및 기타 서비스 공간의 과잉공급 우려 없음) 분석되는 바, 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은 상징성과 실익을 모두 충족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신창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장
sch@sdi.re.kr

오용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yho@sdi.re.kr